

‘사람·작물·농산물·환경’ 안전확보 사용수칙 반드시 지켜야

과학발달로 등록사항 달라, 사용농약도 반드시 라벨 읽어야

- 홍보부 -

농약이 농업생산에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커서 농약을 무시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적 향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최근 농약은 저독성화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독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따라 농약 사용에 따른 중독사고는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작업후 기분이 좋지 않거나 몸이 나른해지고, 밥맛이 없어지는 등의 경미한 증상은 가끔 있을 수 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게 하기 위하여 농약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동시에 사용에 있어서는 안전성측면에서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농약안전사용의 4원칙

농약 사용시에는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과 작물에 대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안전, 환경에 대한 안전 등 4가지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중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안전사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사용자 자신의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자신의 건강관리 시작으로,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농약사용의 수칙을 확실하게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작물에 대한 안전

병해충이나 잡초를 방제한다 하더라도 작물에

약해를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안된다. 약해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라벨표시사항 참고)을 고려하면서 적기에, 적량의 농약을 살포하여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용 기준(라벨표시의 사용약량,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을 확실하게 지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환경에 대한 안전

농약사용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으로의 영향, 특히 하천이나 강, 바다 등을 오염시키거나 농약을 사용하는 주변의 주민이나 유용 동·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라벨에 표시된 안전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사용할 장소에 적절한 농약의 종류나 제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약사용에 앞서

농약사용시에는 반드시 라벨의 표시사항을 잘 읽도록 하고 절대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약의 라벨에는 유효성분과 독성의 강약, 사용대상작물의 종류, 대상이 되는 병

해충과 잡초의 이름, 사용약량, 사용할 시기와 횟수, 주의사항 등 그 농약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농약은 새로운 시험결과나 새로운 지식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 농약은 물론이고 설명 사용한 적이 있는 농

약도 사용하기전에 반드시 라벨을 잘 읽도록 해야 한다. 적용대상이외의 작물에는 사용을 피한다.

다음으로는 마스크는 물론 고무장갑, 방제복, 보호구를 준비한다. 또한 방제기구에 대한 정비, 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해 놓아야 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농약정보**

만화로 보는 중독사고 예방수칙



몸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병약한 사람, 어린아이는 살포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방수성 작업복을 입고 약액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며 젖으면 도중에도 갈아입으십시오.



여름 한낮을 피하고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살포하십시오.



약이 몸에 묻지 않도록 바람 부는 방향에서 살포하십시오. (강풍때는 작업하지 마십시오)



농약살포를 완료하면 몸을 반드시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으십시오.



한 사람이 장시간 살포하거나 연일 살포하지 않도록 방제계획을 수립하십시오.